

濟州島 民具 (Ⅲ)

－푸는체－

高 光 敏*

목 차

- I. 머리말
- II. 전승지 금악리의 배경 및 제보자
- III. 제작과정

I. 머 리 말

한국 본토의 농기구들 중 곡식에 섞인 뉘나 돌 따위를 바람에 불리도록 할 때 쓰이는 연장이 있다. (김광언은 그의 저서[한국의 농기구, 文化財管理局]에서 키블 풍구·체 등과 함께 '고르는 연장'으로 분류한 바 있다.) 이를 키라 하는데, 제주도에서는 이를 '푸는체'라고 부른다. 바로 이 푸는체는 '바람을 일으키어 쭉정이나 겨를 쫓는다'는 뜻을 가진 제주 사투리의 동사 '푼다'의 매김꼴인 '푸는'과 '체'와의 합성어인 듯하다.

한국 본토의 키나 제주도의 푸는체는 둘 다 곡식이나 다른 물건을 까블려서 쭉정이, 검부러기 등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 쓰는 연장이라는 점에서 똑 같은 것이지만, 그 생김새는 물론 그것을 만드는 재료가 한국 본토의 것과는 크게 다르다. 한국 본토의 키가 대나무를 주재료로 하여 만드는 데 반하여, 제주도의 푸는체는 차풀(제주도 사투리로 '자골')·새삼·버드나무 등으로 결어 만든다. 또 생김새에 있어서도 어느 쪽의 것이나 앞은 편평하고 뒤는 좀 오긋하게 만들어졌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한국 본토의 키는 그 앞쪽에

* 濟州大學校 博物館

한결같이 작은 날개가 달려 있지만, 제주도의 푸는체에겐 그게 없다.

본고는 현재 제주도에서는 유일하게 금악리(翰林岾 今岳里) 일부 가옥에서만 전승되는 푸는체의 제작과정을 현장조사한 후, 순차적으로 서술한 글이다. 이는 제주도 민구 연구를 위한 그 표본 조사의 하나인 동시에 제주도 전통 수공예의 일면이기도 하다.

Ⅱ. 전승지 금악리의 배경 및 제보자

1. 금악리

제주도의 푸는체는 유독 금악리 한 마을에서만 전승되어 왔다. 이 마을은 행정구역상 북제주군 한림읍에 속한다. 한림읍의 행정중심지인 한림리에서 동남쪽으로 7.3km 지점인 한라산 해발 230고지에 자리 잡고 있어 한림읍 관내의 여러 사연취락들 중에서도 최고지에 위치한 마을이기도 하다.

현재 이 마을 내에는 4백여 가구에 1천 4백여 명의 주민들이 한데 모여 살고 있다.

금악리는 한림읍의 총면적 중 약 3%에 해당되는 4천여 ha의 넓은 면적을 갖고 있다. 그래서인지 예로부터 이 광활한 목초지를 배경으로 하여 목장이 여럿 자리 잡고 있기도 했었다.

고려 충렬왕 3년(1277)에 원이 제주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들어온 가축들을 바로 이 마을 목장지대에 방목했던 것을 발단으로 하여 이조 시대에는 국마장이 들어서기도 했었다 한다.

이 마을 사람들이 어느 마을 사람들에 비하여 보다 손쉽게 푸는체를 만들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입지조건과 직결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푸는체의 주가 되는 재료인 차풀이나 새삼은 바로 목초의 일종으로 이 마을을 중심으로 한 목초지에서 많이 자생하고 있다는 점과 푸는체의 테두리(제주 사투리로 '예움')를 만들 수 있는 주재료인 자귀나무가 이 마을에서부터 보다 가까이에 위치한 한라산 중턱, 속칭 '어승생'(해발 1,176m)에서 많이 자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지조건으로 말미암아 일찍부터 이 마을 사람들은 농·목축업을 주업으로 하여 살아왔지만, 부업으로는 푸는체를 걸어 팔면서 생계에 보태었다. 일정한 시기에 푸는체를 만드는 재료들을 준비해 두었다가 틈이 날 때마다 온 마을 사람들이 푸는체 결는 일에 열심으로 살아 왔다. 밤으로는 삼을 꼬아 푸는체 낚의 줄(제주 사투리로 ‘징놀’)을 꼬았고, 낮으로 틈이 생기면 푸는체를 만들며 살아왔다. 그러니 온 마을 사람들이 사시사철 밤낮을 가리지 않고 틈이 생길 때마다 푸는체를 만들며 살아왔다는 말이다.

분업 또는 협업: 푸는체를 만드는 일은 철저히 분업 내지는 협업으로 이루어진다. 여러 이웃이 분업하여 푸는체를 만들기도 하고, 또 한 가정에서만 만들어지기도 한다. 어느 경우에서건 철저히 남녀 분업 체계를 유지한다. 푸는체를 만드는 일은 바닥짜기와 ‘에움’ 붙이기로 양분되는데, 전자의 일은 여자들이, 그리고 후자의 일은 남자들이 한다. 바닥을 짜는 일이 보다 정교함을 요하는 일이라면, 에움을 둘러 붙이는 일은 여자들이, 그리고 후자의 일은 남자들이 한다. 바닥을 짜는 일이 보다 정교함을 요하는 일이라면, 에움을 둘러 붙이는 일은 보다 무거운 힘이 요구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집이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여러 집에서 짜진 푸는체 바닥이 한 집으로 모이게 된다. 그러면 그 집에서는 그 태두리인 에움만을 묶게 된다. 그리고 한 가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여자는 푸는체의 바닥을 짜고 남자는 그 태두리인 에움을 묶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푸는체는 주로 행상이나 아니면 시장으로 내다 판다.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만든 푸는체를 약 10여 죽씩 지고서는 도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팔아 왔다고 한다.

2. 제보자

① 김신학(남·85): 푸는체의 고장 금악리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줄곧 이 마을에서만 살아 왔다.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 푸는체 재료 중의 하나인 자귀나무를 베러 한라산 중턱을 오르내리기 시작하면서부터 푸는체 만드는 일과 인연을 맺었다. 그러니 아버지로부터 푸는체의 태두리인 에움을 묶는 일과 그 재료감을 준비하는 일을 배웠으니 가업을 계승한 셈이다. 15여 년 전까지만 해

도 푸는체를 팔기 위하여 부인과 함께, 때로는 혼자서 1년에도 몇 차례 제주 섬 안을 돌아 다녔다. 또 푸는체 재료 중의 하나인 버드나무 가지를 베어오기 위하여 지금의 제주시 광양벌까지 수 차례나 지깃짐을 지고 왕복한 바도 있다. 일생을 푸는체와 인연을 맺고 살아 온 셈이다.

② 허씨 할머니(여·85) : 서광리(大靜邑 西廣里)에서 태어나 16세 되던 해에 푸는체의 고장으로 시집오게 되면서부터 푸는체 만드는 일과 인연을 맺었다. 본격적으로 푸는체 만드는 일을 시작한 것은 22세가 되던 해, 시어머니로부터 푸는체 바닥짜기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부터다. 처음에는 매우 엉성하여 볼품이 없었으나 한 5년이 지나서야 익숙해지게 되면서 하루에 바닥 여섯장을 거뜬히 짤 수 있었다 한다.

Ⅲ. 제작과정

푸는체를 만드는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바닥을 짜는 일과, 그 바닥에다 예움을 붙이는 일이다. 전자의 일은 여자들이, 그리고 후자의 일은 주로 남자들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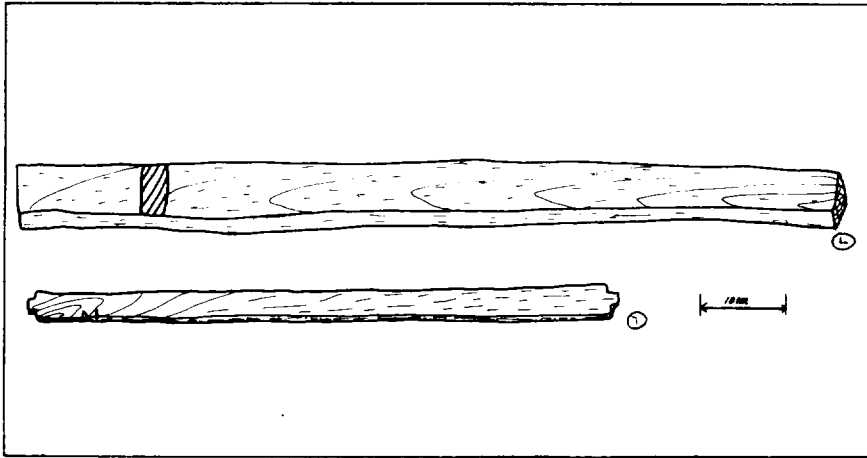
1. 바닥(바둑)짜기

① 재료와 도구

재료 : 바닥을 만드는 재료는 버드나무, 차풀(자골), 새삼이다. 버드나무 가지는 음력 5월에, 그리고 차풀과 새삼은 음력 8월쯤에 구해다가 잘 말려 보관해 둔다. 재료를 구입해 두는 시기를 넘겨서는 재료가 버덕지게 되고, 일러서는 무르기 마련이라 적당한 시기에 구입해 뒤야 한다. 이렇게 해서 준비해 둔 재료를 가지고 사시사철 틈이 날 때마다 푸는체를 걸어 나간다.

도구 : 푸는체 바닥을 짜는 데 필요한 도구로는 ‘징대’·‘받침낭’, 그리고 날줄인 ‘징늘’이 있어야 한다.

① 징대 [그림1 참조] : 푸는체 바닥을 짜는 데 가장 중심이 되는 틀이라고 할 수 있다. 자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양쪽으로 턱이 달렸다. 이 턱은 푸는체 바닥을 깔는데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날줄(이를 ‘징늘’이라 함)을 걸어 묶기 위



〈그림1〉 푸는체 바닥을 짜는 연장(① 장대 ② 받침낭)

한 것이다. 그리고 한쪽으로는 눈금을 매겼다. 이는 바닥의 길이를 쉬 알아보기 위하여 표시한 것으로 '지레기 툽'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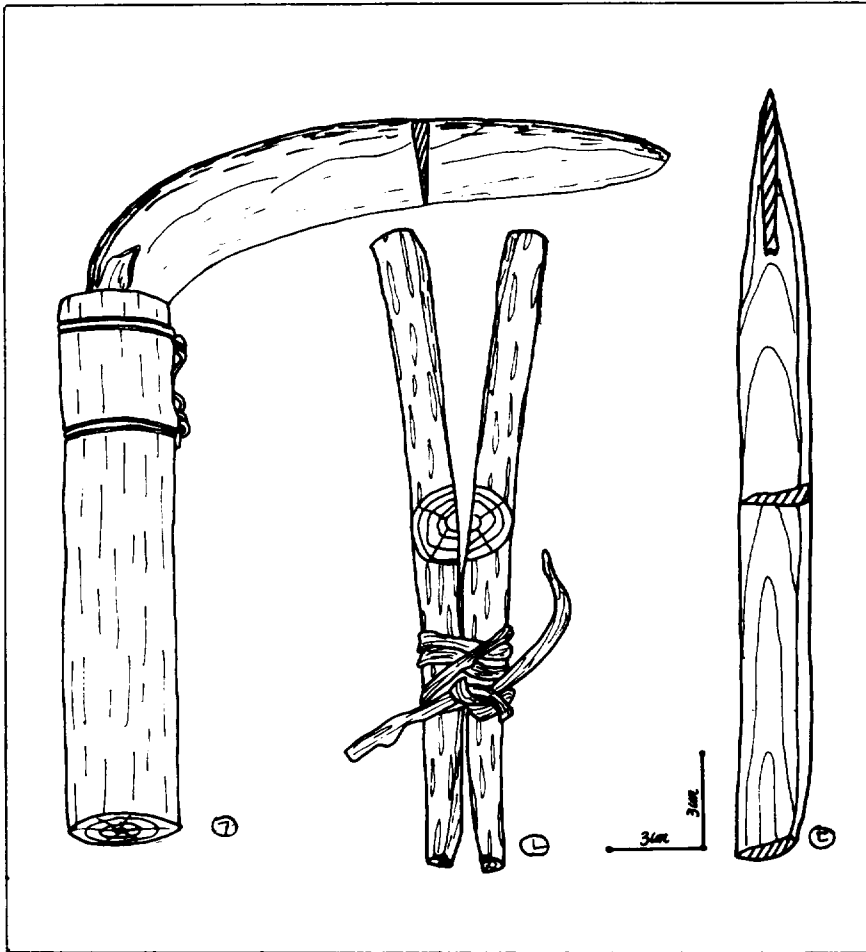
② 받침낭[그림2 참조]: 푸는체의 바닥을 모두 짠 후에 징대를 받쳐 바닥의 날개가 30-40도 각도로 들리워지게 하기 위한 각목에 지나지 않는다. 이 받침낭을 징대 밑으로 받치고 위로는 다른 징대 하나를 놓아 발바닥으로 눌러 밟아 줌으로써 자연 짜나가는 쪽이 들리워지게 된다.

③ 징놀: 푸는체 바닥을 짜는 날의 하나이다. 징대에 거는 가장 중심이 되는 날을 '징놀'이라 하고, 그 이외의 날을 '놀'이라 한다. 오늘날 나이뭇살이 나기 전까지만 해도 삼으로 끈 실로 날을 삼았다.

그러면 **바닥짜기의 전과정**을 순차적으로 알아보기로 하자.

① 징대에 징놀 걸기[사진1 참조]: 징대에다 가장 중심이 되는 날(징놀)을 '사진1'에서 보듯이 두 줄이 되게 징대의 양쪽 턱에다 묶는다. 그리고 나서 징놀에다 재료 하나를 한번 걸어 꼬아 징놀을 조정, 그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나간다.

② 재료의 선별[사진1 참조]: 바닥의 재료를 굵기에 따라 대강 넷으로 선별, 구분지운다. 이는 굵은 것부터 짜기 시작하여 차차 가는 재료를 걸어나가기 위해서다. 이게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푸는체 바닥이 자연 고르지 못하여 맵시가



〈그림〉 푸는체 에움을 붙이는 연장(① 낫(남 굽는 호미) ② चुप제기 ③ 코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바닥도 고르지 못하기 마련이라 쉬 달아 떨어질 우려가 있다.

③ 징놀에 살 끼워나가기[사진2 참조] : 푸는체 바닥의 재료인 두 개의 살이 한 조를 이루면서 '사진2'에서 보듯이 좌우로 번갈아가며 징놀에다 끼워나간다. 재료인 살이 서로 얽혀지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하여 굵기가 일정한 것들

끼리 줄기의 상하로 굽고 가는 것을 서로 맞붙여가며 차차 굽은 것부터 끼워나가기 시작한다. 이와 같이 끼워나가는 일은 징대의 '지레기 툽'까지 계속된다. 이렇게 되면 푸는체 바닥의 중심날을 걸은 셈이다.

④ 징피기[사진3, 4 참조] : '사진3'과 같은 징피기를 두고 다른 말로 '새조심'이라 하기도 한다. 징놀에 끼워진 여러 살들을 하나로 뭉뚱그려 '징'이라 한다면, 징피기란 두 개의 살을 한 조가 되게 해서 날로 걸어나간다는 말이겠다. 그리고 새조심이란 닭이 모이를 쪼듯이 두 개의 살이 한 조를 이루도록 하여 손가락으로 엇갈리게 만들어가며 그 사이에다 날을 끼워 팽팽하게 당겨나가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징피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진4'에서 보듯이 징대를 몸의 방향과 나란히 놓고 징대 바로 밑으로 받침낭을 받쳐 놓는다. 그리고 몸 가까운 쪽으로는 다른 징대를 위로 눌러 받쳐 자연 걸어나가는 쪽이 비스듬히 들리워지면서 날을 걸어나가기에 쉬운 자세를 유지시킨다. 한쪽의 징피기가 모두 끝났다고 생각되면 바닥의 방향을 되돌려 놓은 후 나머지 한쪽도 똑같은 방향으로 걸어나간다.

징피기란 두 개의 살이 한 조를 이루고는 엇갈리게 날로 걸어나가는 것이다. 걸어나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살이라도 조로부터 이탈했거나 또는 걸어나가는 도중에 살이 하나 부러졌을 경우를 두고 '새피움'이라 한다. 이와같이 새(사이)가 어그러졌을 때에는 바로 그 지점에서 부터 다른 날로 짜나가고, 살이 부러졌을 경우에는 다시 다른 살을 더 끼워 넣어 흠집을 메꿔주며 계속 걸어나간다. 이를 두고 사이를 바로 잡아나간다고 해서 '새잡음'이라 한다.

이렇게 해서 푸는체 바닥짜기가 모두 끝나면 에움 붙이기로 들어간다.

2. 에움붙이기

'에움'이란 사방을 둘러 싸거나 둘러 묶는다는 뜻인 '에우다'의 명사형에서 온 말인 듯하고, 여기에서의 에움 붙이기란 이미 짜 놓 푸는체 바닥을 일정한 재료로 그 테두리를 에워 묶는 일이다.

① 재료와 도구

재료 : 푸는체의 에움 뒤쪽으로 거의 수직에 가깝게 세워 붙여 묶지만, 앞쪽으로 울수록 차츰 밖으로 벌어지다가 나중에는 거의 평행이 되게 하여 묶는다.

이런 모양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에움의 재료가 되는 나무는 자연 질기면서도 잘 휘어지는 성질을 가진 나무이어야 한다. 그게 바로 자귀나무다.

자귀나무는 이 마을에서 보다 가까이에 위치한 한라산 중턱, 속칭 ‘어승생’ 일대에 자생한다. 이 마을 남자들은 자귀나무의 수분이 알맞게 올라 재료를 다듬기에 알맞은 시기인 음력 5월에 산으로 올라 며칠씩 살면서 에움 감을 준비하고 온다.

결이 좋은 자귀나무를 골라 베어 온 후, 통나무에다 낮(호미)을 대어 약 0.5cm 두께로 틈을 내어 가며 나무의 결을 따라 벗어내간다. 이렇게 하여 푸는체 에움 감을 준비하는 게 일반인데, 1년치의 에움 감을 한 달 안에 준비해 뒀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에움을 묶는 재료인 칩줄도 이 시기에 준비해 둔다.

도구 : 에움을 붙이는데 필요한 도구로는 ‘갯낭’·‘코쟁이’·‘줍세기’ 그리고 낮(낭 굽는 호미) 등이 있다.

① 갯낭 : 폭이 5.5cm, 길이가 약 1미터쯤 되는 것으로 바로 이 위에다 에움의 재료감을 얹혀 놓고 ‘사진5’에서 보듯이 낮으로 에움의 재료를 다듬어 나가는 데 받침이 되는 나무토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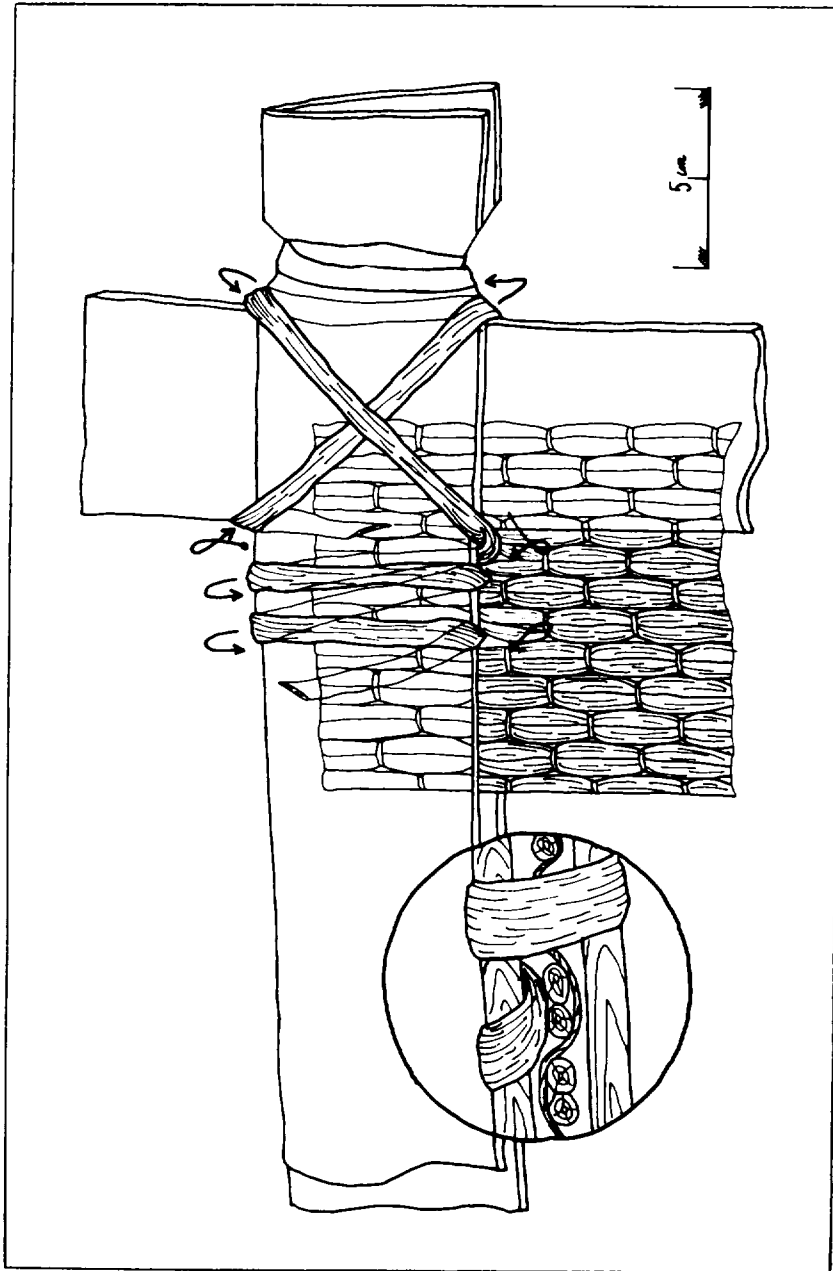
② 코쟁이[그림2 참조] : 에움을 붙이는데 있어서 푸는체 여기저기에 구멍을 뚫기 위한 연장이다. 끝이 뾰족하고 자루가 있는 것으로 송곳처럼 생겼다. 옛날에는 제주산 사슴뿔로 만들어 쓰기도 했었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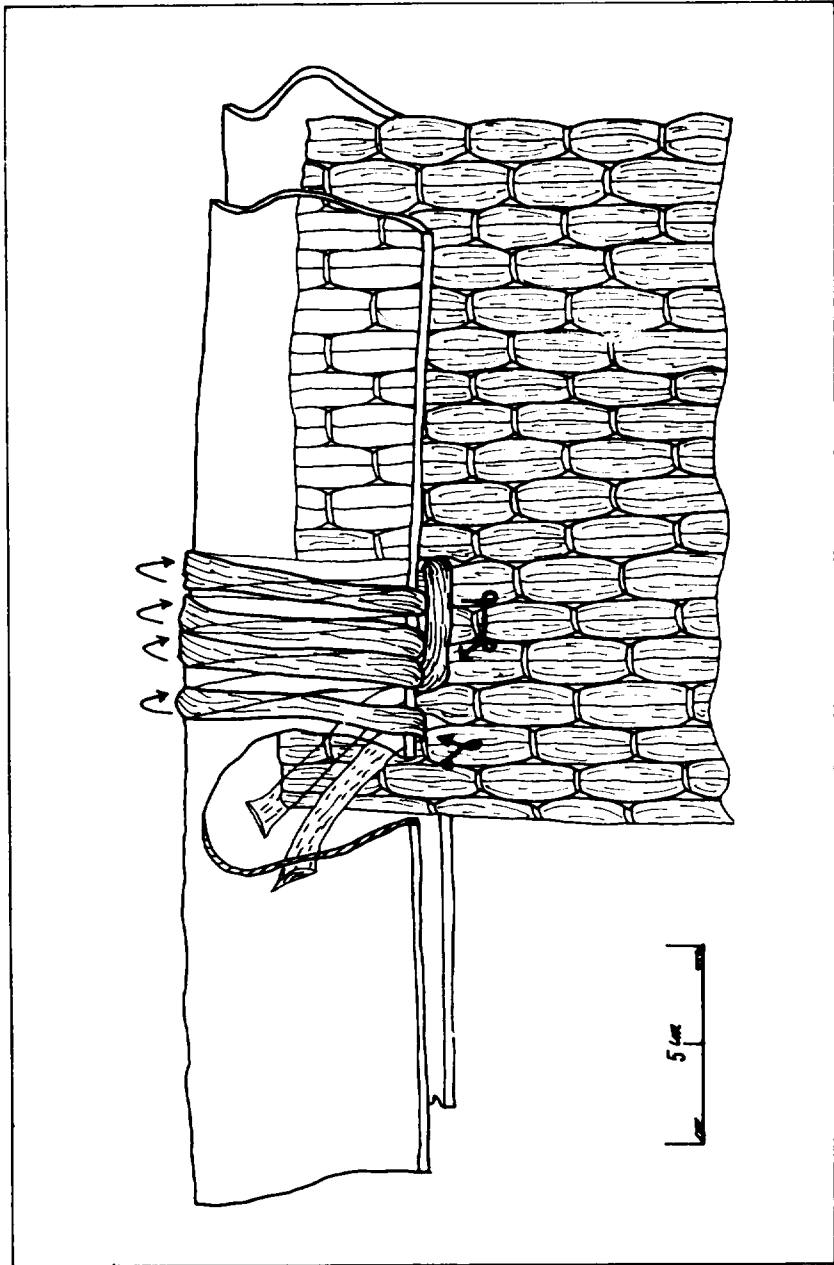
③ 줍세기[그림3 참조] : 푸는체의 바닥에다 에움을 묶기 전에 에움 감을 푸는체의 바닥에다 임시로 고정시키는 연장이다. 나무가지를 두쪽이 나게 쪼갠 후, 칩줄로 느슨하게 묶었다.

④ 낭 굽는 호미[그림2 참조] : 낮과 동일한 것이나 일반적인 낮에 비하여 그 자루가 짧다. 자루를 이렇게 짧게 만들면 에움을 다듬는데 있어서 낮의 자루가 허리에 받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에서다.

그러면 **에움붙이기의 전과정**을 순차적으로 알아 보기로 하자.

① 난니 붙이기[사진6] : 푸는체 바닥의 앞면(살이 굵은 쪽)에다 바닥과 거의 평행하게 붙이는 독립된 에움을 ‘난니’라 한다. 난니를 붙이기 위해서는 ‘사진5’에서 보듯이 갯낭 위에다 난니를 얹혀 놓고는 낮으로 잘 다듬는다. 그래두고 나서 난니를 얹혀 놓고는 코쟁이로 구멍을 내고 그 구멍으로 으깬 칩줄을 끼워서 굳게 묶어 붙인다. 이어서 나머지 에움을 붙여나간다.





〈그림4〉 목기2

② 에움붙이기 : 나머지 에움을 붙이기 위해서는 우선 난니를 다듬듯이 에움감을 갓넝 위에 얹혀 놓고 낮으로 다듬는다. 에움의 폭은 6cm, 그 길이는 약 146cm쯤 된다.

잘 다듬어진 에움을 붙이는 데는 그 공정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이를 간략하게 요약해 본 후, 다시 자세히 살펴 보기로 한다.

① 겹다리란 에움 두 개를 포개어 후, 그 양끝에서부터 약 7cm 안쪽으로 흠을 내고 최줄로 단단히 묶는다. 그리고 나서 ② 겹쳐진 에움을 슬며시 까벌려 틈을 내고, 그 사이에도 난니까지 붙어 있는 푸는체 바닥을 우격으로 집어 넣는다. ③ 그 후에 여기저기에도 최줄로 단단히 묶어줌으로써 바닥을 에움에다 고정시키는 것이다.

① 두개의 에움을 포개어 묶기 : '사진7'에서 보듯이 146cm나 되는 두개의 에움을 포개어 묶기 위해서는, 일단 포개어진 에움 한쪽 적당한 자리에 '잡제기'를 끼워 임시로 고정시켜 놓는다. 그리고 나서 포개어진 에움 한쪽 끝으로부터 7cm쯤 안으로 들어간 지점에다 낮으로 흠을 내고 바로 그 자리를 최줄로 묶는다. 이렇게 하여 붙여진 에움을 걸어놓은 푸는체 바닥에다 대고 눈짐작으로 에움의 길이를 확인한 후, 다른 한쪽마저 낮으로 흠을 낸 그 자리에다 최줄로 단단히 묶어 준다.

② 에움 사이로 바닥 끼우기 [사진8 참조] : 겹쳐진 에움을 까벌려 틈을 내고, 그 사이에도 바닥을 우겨 넣는다. 그리고 나서 손으로 에움과 바닥을 조정시켜 가며 푸는체 안쪽으로 갈수록 턱이 생기고 길게 하여 푸는체의 모양을 만들어 주고 나서 잡제기를 끼워 임시로 고정시켜 놔 둔다. 이는 다음의 묶기 작업이 편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에서다.

③ 묶기 : 임시로 고정시켜 둔 것을 최줄로 묶어가며 완전하 고정시키기에 앞서 에움 밖으로 노출된 채 걸어지지 않은 여러 살(이를 '살방귀'라 함)들을 낮으로 베어내 버린다 [사진9 참조].

그 후, 난니와 에움이 겹쳐지는 양쪽 두 군데에다 코쟁이로 구멍을 내고 그 구멍으로 최줄을 끼워 휘감아 준 후, 그 최줄의 끝을 코쟁이로 우겨 넣는 것으로 묶기 하나하나를 끝내간다. 이렇게 우겨 넣어 마무리짓는 것을 두고 '굽지운다'라고 한다 [그림4, 사진10, 11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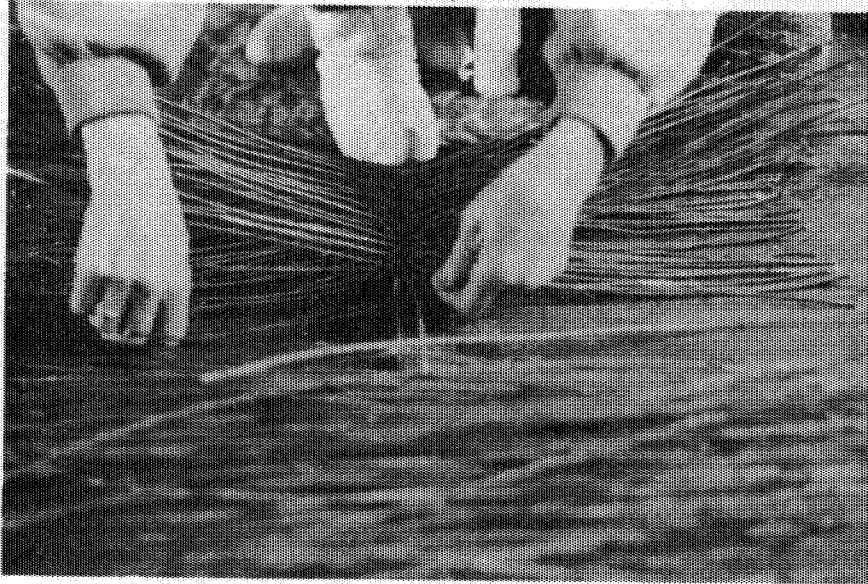
④ 끝손질 [사진13] : 불필요하게 돌출된 난니와 에움의 끝이 있기 마련이다.

이를 '난니뿔' 또는 '에움뿔'이라 한다. 이를 톱이나 자귀 등으로 적당히 잘라 내 버린다. 또 여기저기에 불필요한 잔털 등을 낫으로 따듬어 줌으로써 에움 붙이기의 전과정이 끝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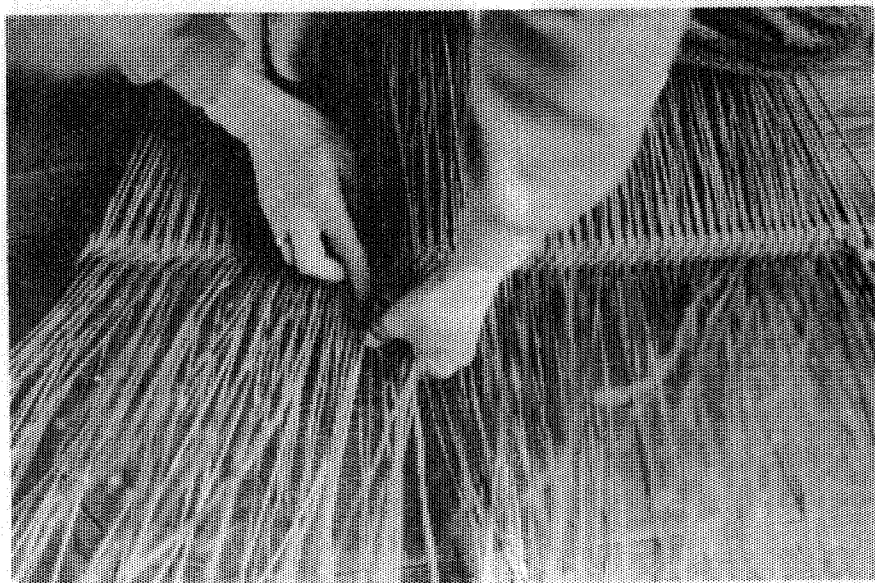
에움 붙이기는 숙련공들인 경우 하루에 7~10개,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2~3개 정도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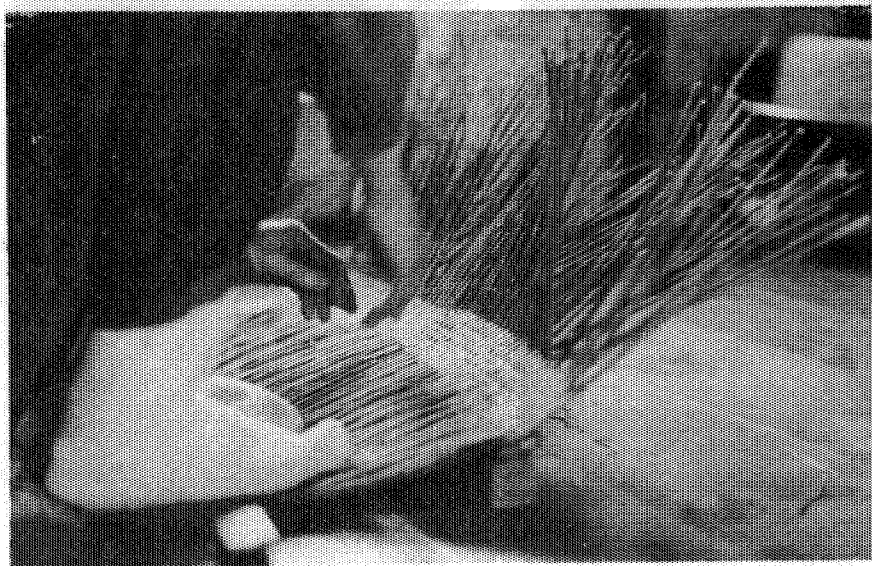
〈사진1〉 짐대에 짐눌 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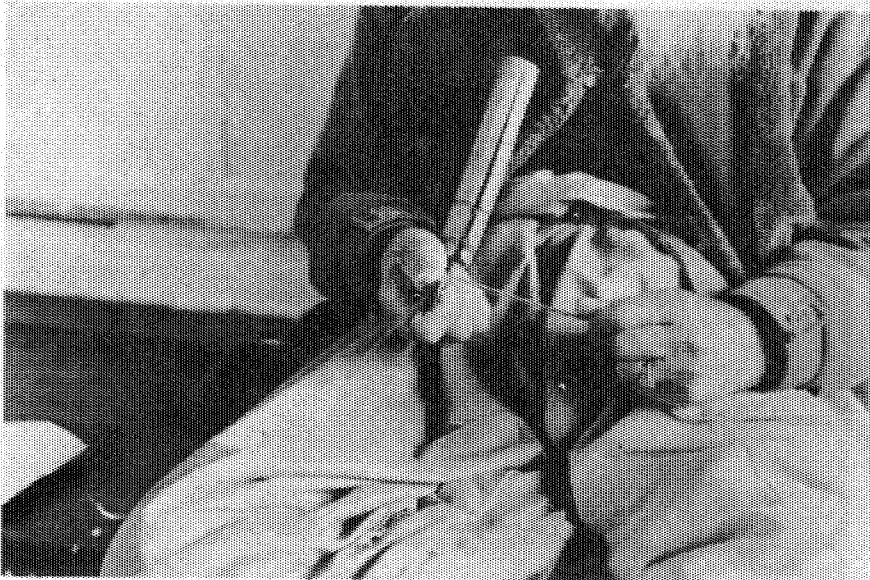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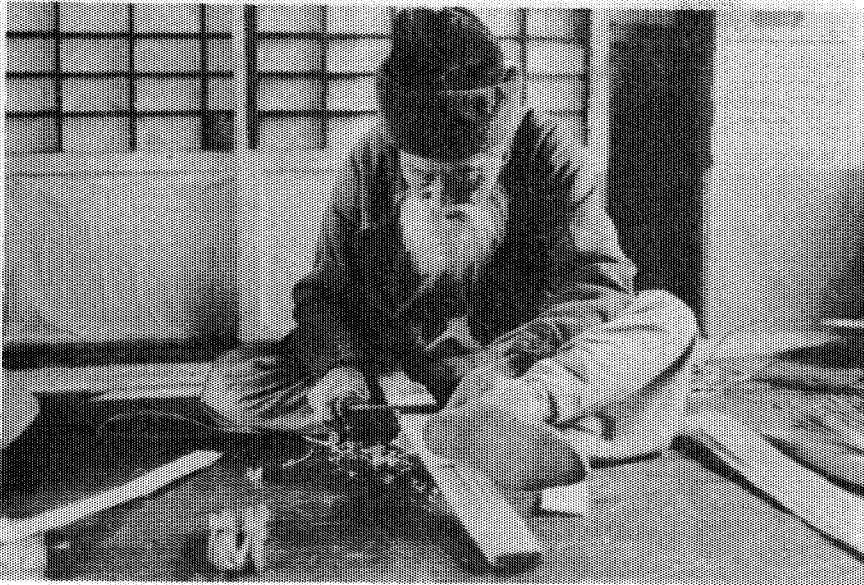
〈사진2〉 짐눌에 살 끼워나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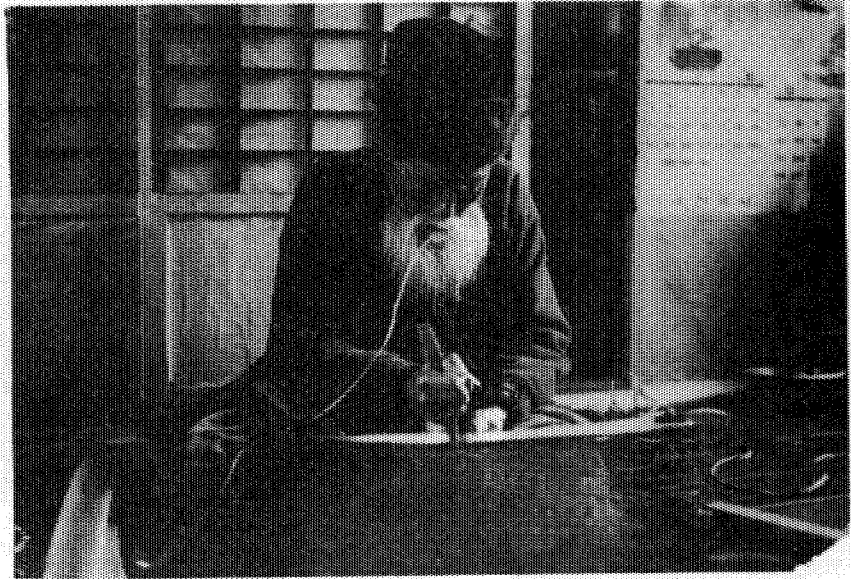
〈사진3〉 징짜기 1



〈사진4〉 징짜기 2



〈사진5〉 예음감 다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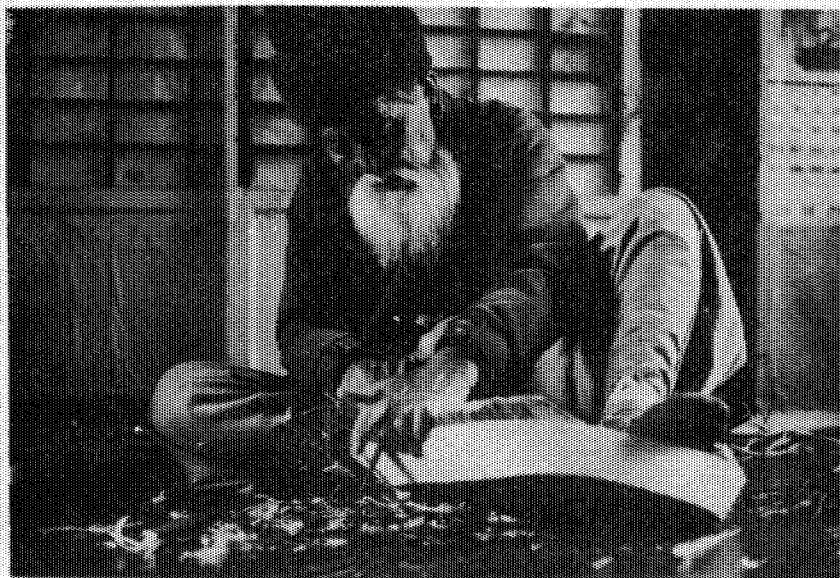
사진⑥ 난니 붙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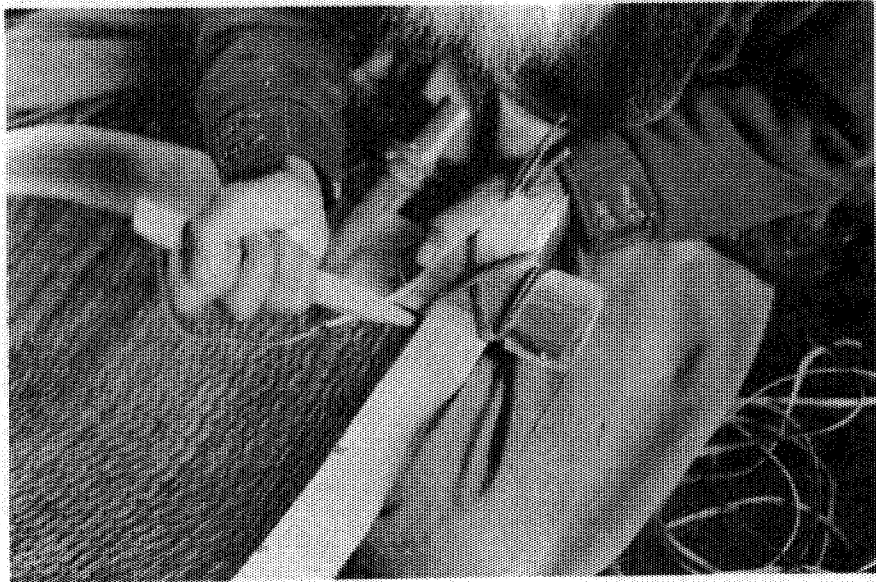
〈사진7〉 두개의 애움울 포개어 묶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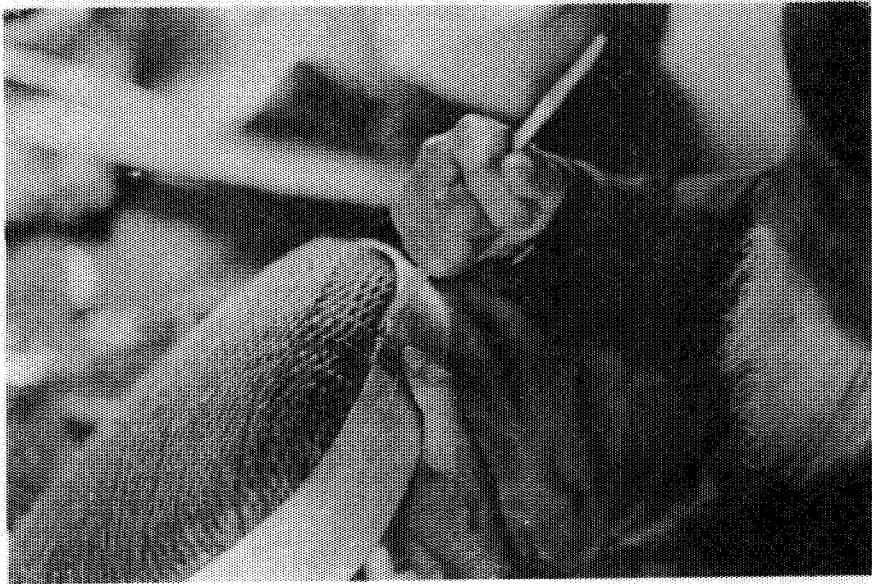
〈사진8〉 예옴 사이로 바닥 끼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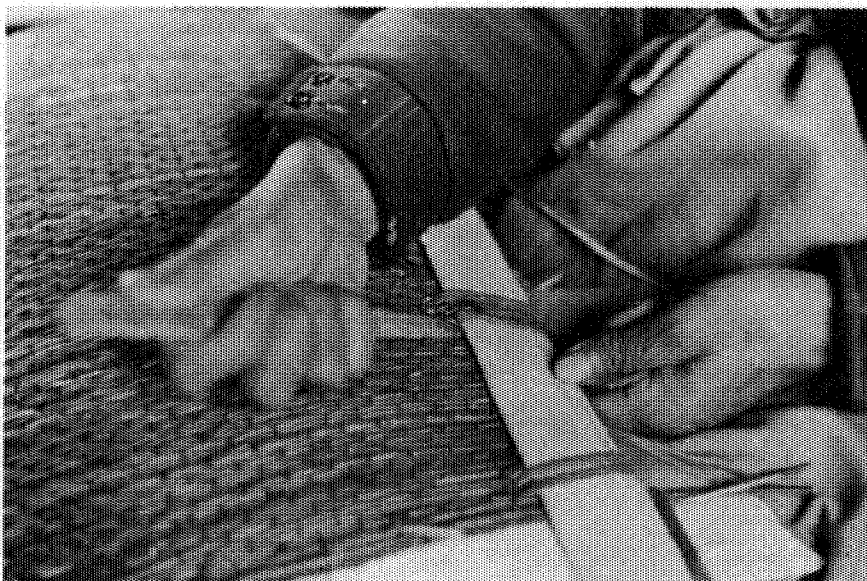
〈사진9〉 '살방귀' 베어내 버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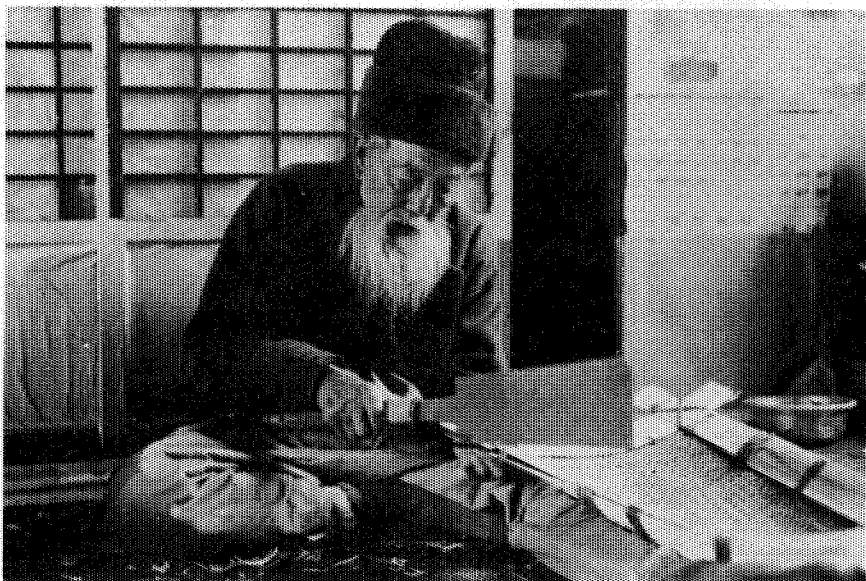
〈사진10〉 코쟁이로 구멍내기 1



〈사진11〉 코쟁이로 구멍내기 2



〈사진12〉 곱지우기



〈사진13〉 꿀손질 중 난니뿔 제거하기